

2025학년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개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해당 자료는 EBSi에서만 제공됩니다.
부단 전체 및 제책포는 금지됩니다.

정답

1	①	2	④	3	⑤	4	②	5	②
6	④	7	①	8	④	9	⑤	10	②
11	①	12	②	13	①	14	②	15	⑤
16	③	17	④	18	⑤	19	②	20	①
21	③	22	③	23	①	24	⑤	25	①
26	④	27	⑤	28	⑤	29	③	30	②
31	⑤	32	⑤	33	③	34	②	35	③
36	③	37	③	38	④	39	⑤	40	③
41	④	42	③	43	②	44	⑤	45	③

해설

[1~3] 화법

1. [출제의도] 발표 표현 전략 사용하기

발표자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와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두 대상의 장단점을 말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오답풀이] ② 청중과 소통하기 위해 청중이 질문한 내용에 담고 있지는 않다. ③ 청중이 요청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으며, 발표자가 발표 중간에 내용을 요약하고 있지도 않다. ④ 발표자는 청중의 실천을 유도하고 있으나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⑤ 발표자는 자외선 차단제를 소개하기 위해 질문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출제의도] 발표에서 자료, 매체 활용하기

[자료 1]은 자외선 파장 길이에 따른 오존층 투과 및 피부 침투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이고, [자료 2]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의 원리를, [자료 3]은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의 원리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민감한 피부에 자극적일 수 있다는 것은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의 특징이므로 [자료 2]를 ㉠에 제시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자외선의 파장 길이에 따라 피부 침투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 1]을 ㉠에 제시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③ 유기 성분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원리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의 원리이므로 [자료 2]를 ㉠에 활용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⑤ 무기 성분이 피부 표면에서 자외선을 반사하여 차단하는 원리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의 원리이므로 [자료 3]을 ㉠에 활용했다는 것은 적절하다.

3. [출제의도] 발표 내용 이해, 평가하기

‘학생 1’과 ‘학생 3’ 모두, 발표 내용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학생 1’은 SPF 수치와 PA 등급에 따라 자외선 차단 효과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해 보고자 하고 있다. ② ‘학생 2’는 차단제의 유형에 따라 다시 발라야 하는 시간 간격이 궁금한데, 발표에서 다루지 않았으며 아쉬워하고 있다. ③ ‘학생 3’은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정보를 바탕으로, 과거 자외선 차단제 사용 후 얼굴이 하얗게 떠 보였던

원인을 추론하고 있다. ④ ‘학생 1’은 자신이 알고 있던 자외선 차단 제품의 SPF와 PA가 차단 지수라는 내용을, ‘학생 2’ 역시 자신이 알고 있던 자외선 차단제를 한 번만 발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떠올리고 있다.

[4~7] 화법·작문

4.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이해하기

[A]의 ‘학생 2’는 제로 칼로리 식품을 초고 제제로 제안하며, 그와 관련하여 예상 독자가 아닌 자신의 배경지식을 언급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식품에 대한 글을 쓰기로 협의했던 바를 환기하며 대화 참여자에게 구체적인 제재 아이디어를 묻고 있다. ③ ‘학생 2’의 제안이 예상 독자의 관심과 정보 가치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평가하며 제안에 동의하고 있다. ④ 많은 사람이 제로 칼로리 식품을 마음 놓고 먹어도 되는 식품으로 여기고 있음을 언급하며 대화 참여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⑤ 제로 칼로리 식품을 마음 놓고 먹다가 단맛 증폭에 빠진 동생의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직접 발화에 호응하고 있다.

5. [출제의도] 글쓰기 내용 조직하기

인공감미료 중 제로 칼로리 음료에 쓰이는 수크랄로스 예로 들어 단맛 강도가 설탕보다 600배 높다는 특성, 설탕과 달리 대부분 흡수되지 않은 채 배설된다는 특성을 서술하였다.

[오답풀이] ① 대표적인 인공감미료로 수크랄로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성분 구조를 분석하여 서술하지는 않았다. ③ 제로 칼로리 식품을 경제성 없이 섭취할 때 장기적으로 인체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며 이용에 주의가 필요함을 서술하였으나, 문제의 해결 과정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④ 제로 칼로리 식품 섭취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대사 활동 혼란과 단맛 증폭 가능성 두 측면에서 서술하였으나, 그 영향을 유추의 방식으로 서술한 것은 아니다. ⑤ 인공감미료의 갖은 섭취가 단맛에 대한 감각을 둔화시킬 수 있음을 서술하였으나, 설탕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6. [출제의도] 대화 내용 반영하여 초고 쓰기

㉠을 바탕으로 작성된 메모 ‘단맛 증폭 가능성’은 인공감미료가 첨가된 제로 칼로리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단맛 증폭에 빠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나)의 3문단에 반영되었다. 단맛과 열량의 불일치는 단맛에 대한 감각을 둔화시키는 원인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을 바탕으로 작성된 메모 ‘열량 정보’는 (나)의 1문단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열량 표시 기준과 함께 제로 칼로리 식품의 열량이 매우 낮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반영되었다. ② ㉠을 바탕으로 작성된 메모 ‘저열량 이유’는 (나)의 2문단에 인공감미료와 설탕의 체내 대사가 다르다는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③ ㉠을 바탕으로 작성된 메모 ‘인식 바로잡기’는 (나)의 3문단에 제로 칼로리 식품을 마음 놓고 섭취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설명하는 것으로 반영되었다. ⑤ ㉠을 바탕으로 작성된 메모 ‘고려할 점’은 (나)의 4문단에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인공감미료가 첨가된 제로 칼로리 식품을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7. [출제의도] 교차 쓰기

<보기>와 달리 [C]에는 ‘열량에 대한 부담 없이 ~ 주목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이는 제로 칼로리 식품이 유행하게 된 배경 설명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② <보기>와 [C] 모두 제로 칼로리 식품의 열량이 0kcal에 가깝다는 점과 식품 열량 표시 기준이 언급되었으며 제로 칼로리 식품으로 불리는 이유는 <보기>에 더 선명하게 제시되었다. ③, ④, ⑤ <보기>와 [C] 모두 제로 칼로리 식품의 종류, 소비 증가량, 인공감미료가 단맛을 내는 원리가 제시되지 않았다.

[8~10] 작문

8. [출제의도] 작문 계획 파악하기

4문단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성공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의 정책과 비교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을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하게 된 사회적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인식 수준을 드러내는 설문 결과를 인용하고 있다. ⑤ 5문단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9.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에 외국의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언급되고 있으나, 이를 적용한 내용이 ㉡에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능력 지수가 정보 식별 관련 교육을 받은 비율에 비해 낮다는 내용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3문단의 실효성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다. ② ㉠~㉡에서 청소년이 미디어 이용 시 유해 콘텐츠에 의도치 않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1문단의 미디어 리터러시 중요성 부각에 적합하다. ③ ㉡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에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3문단의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학부모 인식 제고의 중요성 부각에 적합하다. ④ ㉠~㉡에서 정보 식별 관련 교육을 받은 비율이 높은 청소년들의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능력 지수가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고, ㉠에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알 수 있다. 이는 4문단의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10.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 교육기관, 지역 사회가 함께 힘써야 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③, ④, ⑤ 여러 교육 주체들이 함께 힘써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11~15] 문법

11. [출제의도] 접문장의 종류와 특징 이해하기

㉠에서 명사절은 ‘학교에 빨리 가기’이고, 조사 ‘를’과 결합해 목적어 기능을 한다. 조사 ‘에’는 명사절 내에서 ‘학교’와 결합해 부사어 기능을 하게 한다.

[오답풀이] ②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라일락이 피었다.’로 한 번만 나타나 있다. ③ ‘눈이 부시게’는 어미 ‘-게’가 붙어 만들어진 부사절이다. ④ 관형사절 ‘그녀가 좋아하는’과 서술절 ‘인기가 많다.’가 나타나 있다. ⑤ ‘마뎀’에 놀러 가자.’에 조사 ‘고’가 결합한 인용절이 나타나 있다.

12. [출제의도] 관형사절을 안은문장 이해하기

㉡에서 관형사절은 ‘운동하는’이고, 주어에 해당하는 ‘달이’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의 조건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관형사절은 ‘내가 살던’으로 주어가 생략되지 않았고, 부사어 ‘마을에’가 생략되었다. ③ 연결 어미 ‘-면’을 사용한 이어전문장이다. ④ 홀문장으로서 관형사절이 없다. ⑤ 관형사절은 ‘우리 회사가 새로 개발한’으로 주어가 생략되지 않았고, 목적어 ‘제품들’이 생략되었다.

13. [출제의도] 단어의 구조 이해하기

‘맺음말’은 어근 ‘맺-’과 접사 ‘-음’이 결합한 파생어에 어근 ‘말’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로서 ㉠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오답풀이] ② ‘눈물샘’은 어근 ‘눈’과 어근 ‘물’이 결합한 합성어에 어근 ‘샘’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로서 (‘어근+어근+어근’)의 구조이다. ③ ‘웃절’은 어근 ‘결-’에 접사 ‘-이’가 결합한 파생어와, 어근 ‘웃’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로서 ‘어근+(어근+접사)’의 구조이다. ④ ‘가위질’은 어근 ‘가위’에 접사 ‘-질’이 결합한 파생어로 ‘어

근+접사'의 구조이다. ⑤ '헛걸음'은 어근 '걸-'에 접사 '-음'이 결합한 파생어에 접사 '헛-'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로서 '접사+(어근+접사)'의 구조이다.

14.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닭고[달코]’에서는 앞말의 ‘ㅎ’과 뒷말의 ‘ㄱ’이 합쳐져 ‘ㅋ’으로 소리 나는 축약만 일어났다.

[오답풀이] ① ‘밥값[밥갑]’에서 뒷말의 ‘ㄱ’은 ‘ㅂ’으로 교체되고, 뒷말의 겹받침 ‘ㄱ’ 중 ‘ㅅ’이 탈락했다. ③ ‘물약[물략]’에서 ‘물’과 ‘약’ 사이에 ‘ㄴ’이 첨가되고, 앞말의 ‘ㄷ’과 첨가된 ‘ㄴ’이 만나 ‘ㄴ’이 ‘ㄷ’로 교체됐다. ④ ‘달린[다친]’에서 앞말의 ‘ㄷ’과 뒷말의 ‘ㅎ’이 만나 ‘ㅌ’으로 축약됐다. ‘ㅌ’은 다시 모음 ‘ㅣ’의 영향으로 ‘ㅊ’으로 교체됐다. ⑤ ‘샅일[상닐]’에서 앞말 ‘샅’의 겹받침 ‘ㄱ’ 중 ‘ㅅ’이 탈락하고, 앞말과 뒷말 사이에 ‘ㄴ’이 첨가된다. 그리고 앞말의 ‘ㄱ’과 뒷말의 ‘ㄴ’이 만나 ‘ㄱ’이 ‘ㅇ’으로 교체됐다.

15. [출제의도] 피동 표현 이해하기

㉠의 ‘새겨졌다’는 ‘새기다’에 ‘-어지다’가 결합한 말로서, 피동의 문법 요소가 한 번만 나타났으므로 이중 피동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은 주어가 제합으로 동작을 하는 능동문이다. ② ㉡의 ‘덜었다’는 ‘덜다’에 피동 접미사 ‘-어-’가 사용된 피동사가 쓰인 피동문이다. ③ ㉢은 능동문으로 바꾸면 ‘사람들이 음식을 베풀었다.’가 된다. ④ ㉣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가 된다.

16~20] 독서(인문)

<출전>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제구성)

개관: 이 글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 의무의 근거가 되는 대표적 사상인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사상으로,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발전하였으며 소극적 자유주의와 적극적 자유주의가 있다.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달리 시민의 권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써 성취해야 하는 정치적 결과물로 보았으며 시민적 공화주의와 신로마 공화주의가 있다.

16. [출제의도] 글의 전개 방식 파악하기

(가)의 6문단에서 자유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모든 개인이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각자의 양심과 이성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주체적 시민이 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고 했다. 그리고 (나)의 5문단에서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자치와 자율적 시민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과 부합하여 오늘날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각각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현대 사회에서 지니는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는 모두 시대에 따른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변천 과정에 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② (가)와 (나)에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에 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④ (가)와 (나)에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지닌 한계에 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⑤ (나)는 공화주의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한 아리스토텔레스와 마키아벨리라는 철학자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가)는 자유주의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한 철학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

17. [출제의도] 글의 내용 이해하기

(가)의 3문단에서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자유주의에서 의무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나)의 2문단에서 공화주의자들은 개인의 권리나 이익보다 시민의 정치적 의무를 더 우선시하였고, 이런 의무는 개인이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공화주의에서 의무가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의 3문단에서 개인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충돌할 때, 권리를 우선시한다고 했으므로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주의 사상을 토대로 의무보다 권리를 우선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가)의 4문단에서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인 자유는 국가와 타인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자유주의에서 자유는 권력자의 자의적 간섭이 배제되어야 누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나)의 1문단에서 공화주의에서 시민의 권리는 공동체의 의무와 결합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공화주의에서 권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맡은 역할(의무)을 책임 있게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가)의 2문단에서 자유주의에서 시민이 누려야 할 자유의 바탕이 되는 근거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선천적 권리인 천부인권(자연권)이라고 했고, (나)의 4문단에서 공화주의는 자유의 근거를 헌법에서 찾았다고 했으므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서 시민이 누려야 할 자유의 바탕이 되는 근거는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18. [출제의도] 글의 내용 추론하기

(가)의 4문단에서 소극적 자유는 국가와 타인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으며, 간섭이 없는 상태인 방임으로서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했으므로 <보기>에 제시된 사상은 소극적 자유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가)의 5문단에서 적극적 자유는 단지 간섭의 부재에 만족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과 자기실현을 위한 자율적 삶을 중시하는 것으로, 적극적 자유를 지닌자 사상가들은 대체로 개인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능력의 신장과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입장에서 적극적 자유주의자들에 게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 자유주의자가 모르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19. [출제의도] 중심 제재의 특징 이해하기

(나)의 2문단에서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은 정치 참여란 시민의 의무이자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적절한 진술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나)의 4문단에 의하면 공공의 범이 필요하다고 본 것은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이 아니라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③ (나)의 3문단에서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은 정치 참여의 근거를 인간의 타고난 사회성이나 윤리적 자기실현에서 찾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④ (나)의 4문단에서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은 자유의 근거를 시민들 스스로가 심의하고 제정한 헌법에서 찾았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⑤ (나)의 2문단에서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은 정치 참여를 덕성의 함양에서 일이자 윤리적 자기실현이라고 보았고, 3문단에서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은 정치 참여를 의제와 폭정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20.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가)의 4문단에서 자유주의자들은, 소극적 자유는 국가와 타인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으며, 이는 간섭이 없는 상태인 방임으로서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했다. 그런데 <보기>에서 구청 측의 결정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한 판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청 측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은 공화주의자가 아니라 자유주의자들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나)의 1문단에서 공화주의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했으므로 공화주의자들은 공익을 우선시한 구청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법원의 결정을 합리적 판단으로 생각할 것이다. ③ (나)의 1문단에서 공화주의는 공동선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이상적인 시민으로 여긴다고 했으므로 공화주의자들은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한 A를 이상적 시민상과 거리가 먼 사람으로 판단할 것이다. ④ (가)의 4문단에서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와 타인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 소극적 자유를 중시한다고 했으므로 자유주의자들은 A의 소송 제기를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할 것이다. ⑤ (가)의 3문단

에서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개인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21~25] 독서(사회)

<출전> ‘미성년자의 계약취소권’ (제구성)

개관: 이 글은 미성년자의 계약취소권과 관련된 법률 상식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 제5조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미성숙한 행위로 스스로에게 불리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21. [출제의도] 글의 내용 이해하기

5문단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한 판매업자는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의 확인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확인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진한 것으로 본다 고 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맺은 계약을 유지하려는 법정 대리인은 판매업자의 확인 촉구에 대해 반드시 응답할 필요는 없다.

[오답풀이] ① 3문단에서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약을 맺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으므로 계약의 취소는 거래 자체가 무효화됨을 의미한다. ② 5문단에서 판매업자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먼저 계약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철회권’이 있다고 했으므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먼저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한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해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⑤ 4문단에서 생활필수품 이외의 상품을 구매한 경우는 사용한 만큼에 상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므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한 상품은, 그 상품의 성격에 따라 대금 반환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22.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3문단에서 일반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면 판매업자는 이미 받은 대금을 반환하고 상품 구매자는 그 상품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또 4문단에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구매한 상품의 계약을 취소할 경우, 그 상품이 생활필수품에 해당한다면 사용한 만큼의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생활필수품 이외의 상품을 구매한 경우는 사용한 만큼에 상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미성년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을 반환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학생이 구매한 다이어트 식품은 생활필수품이 아니므로 학생은 판매업자에게 10만 원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지불한 20만 원도 반환받을 수 있다.

23. [출제의도] 글의 내용 추론하기

2문단에서 민법 제5조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미성숙한 행위로 스스로에게 불리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했다. 그런데 6문단에서 일상적 거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계약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없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24.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5문단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한 판매업자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의 확인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으므로 판매업자인 병은 미성년자인 갑과 을에게 노트북 구매 계약의 취소 여부를 대한 확인을 촉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의 부모에게 확인을 촉구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 민법 제5조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해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② 5문단에서 미성년자가 판매업자를 속여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믿게 했거나, 법정 대리인이 동意的한 것처럼 믿게 했을 때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을은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상품을 구매했으므로 을과 을의 부모는 노트북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2문단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도 일단 유효하다고 했다. ④ 5문단에서 판매업자가 계약당시에 상품 구매자의 신분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25.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하기

㉠에서 '보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어떠한지) 생각하거나 평가하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그녀는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에서 '보다'로, 이때 '보다'는 '그녀는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② '그는 여전히 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있다.'에서 '보다'는 '(사람이 무엇을) 살피거나 헤아리다'라는 의미이다. ③ '나는 친구가 추천한 책을 감명 깊게 보았다.'에서 '보다'는 '(사람이 책이나 신문 따위를) 읽거나 구독하다'라는 의미이다. ④ '선생님은 지금 병원에서 환자를 보고 계십니다.'에서 '보다'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거나 진로하다'라는 의미이다. ⑤ '노부모는 하루빨리 손자를 보고 싶으신 모양이다.'에서 '보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새로 얻거나 맞다'라는 의미이다.

[26 ~ 28] 문학(고전 소설)

<출전> 작자 미상, 「홍계월전」

개관 : 이 소설은 여성 영웅인 홍계월의 수난과 그 극복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능력이나 사회적 신분이 남성보다 우위에 있는 여성 주인공을 통해 남성 중심의 사회를 비판하고 봉건적 가치관에 맞서는 근대적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은 또한 실리와 능력을 중시하기 시작한 당대 여성들의 의식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성의 능력을 인정하고 여성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26.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보국은 적장 운평, 운경과 거귀 이었지만, 이후 구덕지와 적군의 공격으로 인해 매우 다양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은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사건의 긴박함을 고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계월과 보국 간 갈등 양상을 대화로 통해 제시되고 있으나, 고사가 활용되지 않았다. ② 이 작품에는 시간의 역전적 구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이 작품에는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지 않는다. ⑤ 이 작품의 배경은 규중, 전쟁터 등으로 비현실적 공간이 나타나지 않는다.

27.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보국은 계월의 전령에는 불만을 표출하지만, 계월의 지시를 두둔하는 여공의 말에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남관장은 장계를 통해 반란군의 규모와 위세를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또한 자신의 힘으로는 방비할 길이 없어 적을 막아 달라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② 천자는 계월에게 자신이 덕이 없어 양국이 반역하였다고 말하면서 계월에게 반란을 진압하도록 명을 내리고 있다. ③ 평국은 여성임을 숨겼던 자신을 발하지 않은 천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천자의 명에 따라 전쟁터에 나가으로써 은혜를 갚겠다고 한다. ④ 여공은 보국에게 국가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계월의 전령을 따르라고 계속하고 있다.

28.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보국은 전쟁터에서 계월의 분부와 호령에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준공이 나가 싸우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있으므로, 보국이 전쟁터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계월을 무시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정영태는 ㉠에서 평국을 보내 도적을 막아야 한다고 한다. 이는 계월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능력을 인정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남성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천자는 ㉠에서 계월의 능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계월이 규중에 있다는 이유로 계월을 전령터로 보내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이는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당시 사회 현실의 일면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계월은 ㉠에서 국난을 극복하는 영웅으로 그려지고 있다. 따라서 계월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당당한 존재임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계월은 ㉠에서 위기에 처한 보국을 구한 후 적진을 평정한다. 이는 우월한 능력을 지닌 여성 영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9 ~ 33] 독서(과학·기술)

<출전> '지진파와 내진설계' (계구성)

개관 : 이 글은 대표적인 지진파인 P파와 S파, 내진설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P파는 속도는 빠르지만 피해가 작은 편이고, S파는 속도는 느리지만 피해가 큰 편이다. 또 P파는 모든 매질을 통과하지만 S파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다.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건축 설계를 내진설계라 하는데 내진구조와 제진구조, 제진구조의 세 유형이 있다.

29. [출제의도] 글의 내용 이해하기

3문단에서 외핵은 액체 상태라고 했는데 P파는 모든 매질을 통과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외핵을 통과할 수 있다. 또한 P파 압영대는 P파가 매질의 경계면을 지날 때 일어나는 굴절 때문에 발생한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 P파는 진폭이 작아 S파보다 지진 피해가 작다고 했다. ② 3문단에 의하면 지진파의 전달 속도는 매질의 밀도가 높아지면 빨라지고, 낮아지면 느려진다고 했다. 따라서 지진파는 매질의 밀도에 따라 전달 속도가 달라진다. ③ 3문단에 의하면 P파는 매질에 관계 없이 통과하는 반면, S파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다. ⑤ 2문단에 의하면 P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일치하는 반면, S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이라고 했다.

30.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보기>에서 관측소 1에 도착한 지진파는 A와 B를 지나 왔는데, B는 P파와 S파가 모두 지나므로 고체이지만 A는 P파만 지나므로 고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측소 1에 도착한 지진파가 동일한 상태의 두 매질을 지났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2문단을 통해 P파가 S파보다 먼저 도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관측소 2에 도착한 지진파와 관측소 3에 도착한 지진파 중 B만 지난 지진파를 비교하면 관측소 3까지의 거리가 더 멀다. 2문단에서 진원에서 멀어질수록 PS시는 커진다고 했으므로, 관측소 3의 PS시가 관측소 2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④ 3문단에서 S파는 고체 매질만 통과할 수 있다고 하였다. 관측소 3에는 S파가 도착하였으므로 고체 매질을 지나왔음을 알 수 있고, 관측소 1에는 S파가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액체 또는 기체 매질을 지나왔음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지진파는 매질의 밀도가 높을수록 전파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였다. C를 지난 지진파가 B를 지난 지진파보다 더 빨리 도착하였다는 것을 통해 C의 밀도가 B의 밀도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 [출제의도] 문맥을 활용한 추론하기

P파와 S파의 도착 시간의 차이를 PS시라고 하는데, 진원 가까워 관측소에서 측정한 PS시를 통해 진원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PS시를 측정한 곳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 S파가 도착하기 전에 지진 경보를 발령하여 지진에 대비할 시간을 줄 수 있다.

[오답풀이] PS시를 통해 지진파의 진폭(①)과 매질의 진동 방향(②), 압영대(③)를 예측할 수 없다. ④ PS시를 안다고 해서 추후 지진이 언제 발생하는지 알 수는 없다. 또한 PS시는 P파 도착 이후 S파 도착 시간을 예측하여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 활용될 뿐 추후 지진 발생 시점을 예상하는 데에 활용되지 않는다.

32.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본문 내용을 <보기>에 적용하면, (가)는 제진구조, (나)는 제진구조, (다)는 내진구조임을 알 수 있다. 6문단에 의하면 제진구조는 건물과 땅 사이의 장치에 의해 건물이 보호됨을 알 수 있다. 또 4문단에 의하면 내진구조는 기둥과 벽 자체를 튼튼히 하여 건물 자체의 내구성으로 건물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5문단과 6문단에 의하면, 내진구조와 제진구조가 건물에 전달된 지진력을 버티는 것인 반면, 제진구조는 건물에 전달되는 지진력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가)가 건물에 전달되는 지진력을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② (나)는 지진파의 파장을 길게 바꾸어 지진력을 줄인다. 파장이 짧아지면 지진력이 커진다. ③ 4문단에 의하면 (다)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더라도 건물 구조에 심각한 손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고, 또 (나)가 (다)보다 충격을 덜 전달한다고 하였으므로 지진 발생 시 건물 구조가 받는 손상은 (다)가 (나)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④ 5문단에 의하면, (가)는 제진장치인 건물의 진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여 건물을 보호한다고 하였다. (나)는 건물의 진동 방향과 작용하는 힘의 방향에 대한 언급을 글에서 찾을 수 없다.

33. [출제의도] 어휘의 의미 이해하기

건물의 붕괴를 '막는' 것과 문맥상 같은 의미를 가진 어휘는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다'의 뜻을 가진 '방지(防止)하다'이다. '보완(補充)하다'는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다'의 의미이다.

[34 ~ 37] 문학(현대 소설)

<출전> 김재형, 「코끼리」

개관 : 이 소설은 이주 노동자 2세인 '나'의 시선을 통해 현대 사회의 이주 노동자 문제와 소외를 그리고 있다. '나'는 열악한 주거 환경, 가족 해체, 정세적 혼란 속에서 살아간다. 비재 아버지씨의 절망, 토야 엄마의 고단한 삶, 아버지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꿈은 모두 이들이 겪는 고통과 소외를 잘 드러내고 있다.

34.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나'는 비재 아버지씨의 사건을 이야기하며 마음에 불행이 너무나 흔해서 웬만한 일에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비재 아버지씨의 분노의 비명을 내걸었다고 했으므로 알리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아버지가 '나'의 반응을 못마땅해 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토야 엄마가 남편을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아버지가 한국에서 살아야만 하는 현실에 절망하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35.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A]에 나타난 특정 사건은 알리가 비재 아버지씨의 돈을 도둑질한 것으로, 알리가 돈을 훔치게 된 내적 동기에 대한 서술자의 분석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알리의 도둑질에 대해 서술자가 '막내아들'의 생명을 훔친 것과 같다. 라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② 알리가 비재 아버지씨의 돈을 훔쳐 달아난 사건의 전말이 요약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④ 방글라데시 아주머니의 갓난아기 울음소리, 1호실 미얀마 아버지씨의 소란 등 사건이 발생한 시점의 여러 정황이 나열되고 있다. ⑤ '절망과 분노에 찬 비명 소리는 한동안 잊혀질 것 같다'는 비재 아버지씨의 행동에 대한 서술자의 심리적 반응을 보여 준다.

36.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 파악하기

토야 엄마의 노랫소리를 듣고 '나'는 떠난 어머니의 뉘세와 기억을 상기하고 있으며 이는 '나'의 그리움을 불러일으킨다.

[오답풀이] ① 비제 아저씨가 숨긴 '돈'은 아들의 심장 수술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결박함을 나타낸다. ② '나'는 고향을 떠나 공장 지대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현재 처지를 떠올리며 신화 속의 격이 낮아진 '코끼리'와 동일시하고 있으므로 아버지의 현재 삶과 대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신 김치'는 '나'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떠올린 것으로, '아버지'가 쓸쓸함을 느끼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달력 사진'을 보며 아버지가 고향을 추억하는 것과 달리 '나'는 허탈라야가 '금으로 씌운 어금니'처럼 보이기나 '햇빛에 녹아내리기 직전의 노란 바닐라 아이스크림'으로 보일 뿐이라고 했으므로 '나'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7.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아버지의 꿈에서 고향은 행복한 삶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아버지는 한국에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에 놀라 깨어나게 된다. 이는 차별과 편견으로 가득한 한국을 떠나 고향으로 가고 싶으면서도 가족 때문에 한국에서의 삶을 택할 수밖에 없으며, 고향도 한국도 모두 아버지의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소외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주 노동자들이 받는 차별과 그 아픔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진 현실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돼지축사'를 개조한 거주지에 대해 '곰팡이와 얼룩이 가득한 벽', '취가 들라거릴 구멍' 등으로 묘사한 것은 인간다운 주거 환경에서 멀어진 열악한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② 토아 엄마는 기계부품에 나사를 떼어 푼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남편이 떠난 뒤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을 보여준다. ④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호적도 국적도 없어 그리워할 고향이 없는, 이방인으로서 정체성 혼란을 느끼고 있다. ⑤ '나'가 학교에서 청강생일 수밖에 없는 현실은 학교에서조차 존재를 인정받지 못해 느끼는 '나'의 소외감과 정서적 고통을 보여준다.

[38 ~ 42] 문학(갈래 복합)

<출전> (가) 작가 미상, 「청춘과 부가」, (나) 작가 미상, 「갈라 보다 말라 보다」, (다) 신영복,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개관: (가)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뜬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청상이 된 화자의 외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작품이다. 통사 구조의 반복과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임파의 이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따라나설 것인지 말 것인지 망설이지만 결국엔 임을 따라나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화자의 사랑의 마음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화자는 임에게 가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다 하여도 임을 따라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다)는 글쓴이가 울진군 서면 소랑리의 소나무 숲을 보면서 삶을 성찰하는 편지 형식의 글이다.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무한 경쟁의 논리와 무차별적 소비만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삶을 비판하는 동시에 그 대안을 제시하는 작품으로, 현대 사회의 척박함 속에서도 소나무의 덕성을 잃지 않는 마음을 전달하고,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인간의 삶으로 확장하고 있다.

38.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이해하기

(가)에서는 '말 잘하고 인를 좋고 활 잘 쏘고 키 훨씬 큰' 남궁의 모습을 열거하여 보고 싶은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나)에서는 '창, 칼, 도끼' 등을 열거하여 고난을 감수하고자라도 임을 사랑하고 따르겠다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계절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② (나)는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모래 가고 글피 가고 하루 이틀 사를 나을 곱잡아 여드레'에서 계절적 표현을 찾을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임을 따라나설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임에 대한 예찬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다)는 '당신'에게 말을 건네는 편지글의 형태를 띠고 있다. ⑤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며, (다)는 경북

궁 복원에 수많은 소나무가 소요되어 늘어진 광경을 감히 상상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의 변화는 보여주고 있으나, 이를 통해 역동적 분위기를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39.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① '삼천 리'는 화자와 임 사이에 막대한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단절된 정도를 강조한다. ② '팔십 리'는 화자가 임에게 가기 위해 헤쳐 나가야 하는 고난의 정도를 강조한다.

[오답풀이] ① 화자는 임과 부부의 연을 맺어 백년해로하고자 약속했으나 젊은 나이에 사별하였다. 그러므로 ①은 임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화자의 바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③은 화자가 임과 함께하기 위해 헤쳐 나가야 할 여정이나 어려움으로, 화자는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③ ④는 화자와 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의 정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화자가 가야 할 험난한 여정이라 볼 수 없으며 ⑤는 화자가 가야 할 시련의 길이, 임이 가야 할 시련의 길이 아니다. ④ ⑤와 ⑥ 모두, 임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의미한다.

40.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가)의 '사주팔자' 그러한'과 (나)의 '내 내 팔자는 왜 그리 주책없어'에서는 이별의 원인을 운명에서 찾고 있을 뿐, 자신의 탓으로 자책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의 '조물'이 시기하고 귀신조차 사정없다'에는 임과 사별한 이유를 조물주와 귀신의 탓, 즉 외부의 요인으로 돌리는 화자의 원망이 나타나 있다. ② (가)의 '어이 그리 못 오는가 무슨 일로 못 오는가'에는 사별한 임이 다시 돌아올 수 없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한탄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④ (나)의 '갈라 보다 말라 보다'에는 이별 상황에서 임을 따라가는 능동적인 행위를 할지, 이대로 이별을 받아들일지 망설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므로 이별의 대처 양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다. ⑤ (나)의 '창과 칼, 도끼까지 다친다 할지라도 임을 따라 아니 갈 수 없네'에는 무수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임을 따라가겠다는 화자의 적극적 의지가 드러나 있다.

41.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나'와 '당신' 모두 살아남기를 포기한 남산의 소나무에 대한 인식 변화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나'는 경북궁 복원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소나무를 언급하며 '그것은 이를테면 고난에 찬 몇 백만 년의 세월을 갈라 내는 것'이라며 인간이 자연을 이기적인 태도로 대한다고 여기고 있다. ② '나'는 소나무가 척박한 환경에서 겨우 자리를 잡아도 아카시아와 활엽수 같은 경쟁수들이 침입해 소나무를 몰아낸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연에도 무한 경쟁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③ '나'가 소랑리 소나무 숲을 찾아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깨닫게 된 것은 '당신'이 그 숲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⑤ '당신'은 벌을 볼 때마다 100원씩 내야 한다고 했으며, '당신'의 말을 떠올리며 '나'는 소나무를 만져볼 때마다 돈을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4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가)의 '견우적녀성'과 (나)의 '은행나무'는 임을 볼 수 없는 화자의 처지와 달리, 서로 마주 보고 서 있다. 이는 임의 부재로 인한 화자의 상실감을 심화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병중에 그런 황제가' '날 새라고 꼬꼬 운다'는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것은 사별한 임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화자의 비극적 인식이 드러나는 것이다. ② (가)에서 '국자간 책 쓴 물이' '눈으로 솟아' '구년'이나 흐르고 '한강'이 되었다는 파장된 상황을 설정한 것은 임에 대한 화자의 절절한 슬픔을 드러내는 것이다. ④ (다)에서 매우 작은 면적만을 차지한 채 '우람'하게 서 있는 소나무들의 모습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살았던 글쓴이의 삶을 반성하게 한다. ⑤ (다)의 '술방한 한 개'는 척박한 환경에 굴하지 않는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글쓴이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함을 환기하는 사물로 볼 수 있다.

[43 ~ 45] 문학(현대시)

<출전> (가) 고경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 (나) 김승효, 「장미와 가시」

개관: (가)는 '상한 갈대'와 '부평초'를 통해 고통과 시련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의연하게 맞서는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는 작품이다. 더불어 암담한 현실에서도 연대할 동반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나)는 '장미'와 '가시'라는 대비되는 소재를 통해 고통 속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적 갈등과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기다린 희망이 실현되지 않을 때의 상실감을 표현한 작품이다. 삶은 고통과 희망이 공존함을 깨닫게 하며 삶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43.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는 '못 가랴', '문제라'에서, (나)는 '못하리오'에서 설의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는 '고통에 적극적으로 맞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의지'라는, (나)는 '고통 속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이라는 작품의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고통과 슬픔의 땅', '뿌리 깊은 벌판'에서 공간의 이동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지만, (나)에서는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③ (가)에서는 '월혈'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고통과 슬픔의 땅을 지나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찾을 수 없다. ④ (가)에서는 '고통에게로 가자'와 같은 정유형 문장을, (나)에서는 '이제 말해 주오'와 같은 명령형 문장을 찾을 수 있다. ⑤ (가)에서는 '흔들리는' '상한 갈대', '흔들리는 부평초' 등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고통과 시련에 의연하게 맞서는 대상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후각적 이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44.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①은 화자의 손을 마주 잡아 주며 화자에게 도움이 될 연대의 대상이고, ②은 화자가 삶을 아무런 것 없이 삶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 매개체이다.

[오답풀이] ① ③과 ⑤은 모두, 화자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대상은 아니다. ② ③은 화자가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게 한 계기로 볼 수 있지만, ⑤은 그렇지 않다. ④ ⑤은 화자를 발전적으로 변화시켜 줄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다. ⑤은 화자를 현실에 만족하게 하는 매개체가 아니다. ④ ⑤은 화자가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일 수 있지만, ⑤은 화자가 경외감을 느끼는 대상이 아니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나)의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면 / 어찌 가시의 고통을 버리지 못하리오'는 기대했던 희망이 실현된다면 삶의 고통을 버릴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희망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의 상실감을 노래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가)의 '밀통이 잘리어도 새운은 돈'은 모습은 연약하지만 강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② (가)의 '고통이여 살 맛대로 가져'는 고통을 부르며 직접적으로 이를 대면하여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④ (나)에서 '가시장미인가 장미가시인가'라고 의문을 품는 것은 고통과 희망이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적 갈등을 드러낸 것이다. ⑤ (가)의 '뿌리 없이 흔들리는'과 (나)의 '가시가 많으니'는 삶의 고통을 겪고 있는 존재의 모습을 상징한다.